

貿易自由化的 進展이 先進國 및 後進國에 미친 影響

李 正 麟 *

- I. 序 論
- II. 戰後 世界經濟의 發展構想으로서의 <貿易自由化>
- III. <貿易自由化>의 進展과 先進國相互間에서의 地位變化
- IV. <貿易自由化>의 進展과 後進國經濟와의 關係
- V. 結 論

I. 序 論

1929年의 世界的 大不況(the Great Depression)의 原因으로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第1次大戰(1914—18)以後 相對的 安定期를 통해서 生産過剩의 傾向이 增大된 것, 둘째, 工業生産物과 農業生産物間의 價格差의 擴大, 이른바 缺狀價格差(Schere)의 進展, 셋째, 金本位制의 復歸過程에서의 各國의 物價水準의 不均衡化.

生産過剩의 傾向이 增大된 狀況을 第1表에 의하여 보건대, 1913年(第1次大戰勃發前年)을 基準으로 하여 1929年까지의 16年間 世界工業生産은 全體로서 50%의 增加를 表示하고 있고, 특히 美國의 增加率은 82,6%로 飛躍하고 있다. 한편 農業生産은 第1次大戰中에 美國· 캐나다· 아르헨틴· 濠洲의 生産이 增大되고, 그 위에 1927—28年부터는 유럽諸國의 農業生産能力이 急速度로 回復되어 世界的인 過剩生産의 現象을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工業生産과 農業生産은 모두 增加하게 되었지만, 物價는 金의 價値(the value of gold)에 比하여 不當하게 높고, 따라서 그것

<第1表> 世界工業生産指數 (1913=100)

	英國	獨逸	佛蘭西	美國	資本主義世界
1890年	62	40	56	39	43
1900	79	65	66	54	60
1910	85	89	89	88	88
1913	100	100	100	100	100
1929	104.4	108.3	144	182.6	150
1932	70.7	51.8	92	81.2	84

資料 : League of Nations, *World Economic Survey*, 1933~34, p.7~8.

이 生産과 消費와의 矛盾을 擴大하고, 그 結果 外國貿易은 世界全體로서 볼때, 生産의 擴大率만큼은 增加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農産物과 工産物間의 價格差가 顯著하게 擴大되어 農産物의 相對的 不利化가 進行되었다. 1910—14年을 100으로하는 美國의 物價指數에 관하여 보면, 이 두가지 關係는 1929年에는 農産物은 138에 不過하였으나 農民이 購入

* 經營學科 副教授

한 消費財의 그것은 158, 農業用生産財(農機具, 肥料等)는 147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農場財産에 대한 課稅는 물경 267로 上昇하고 있다.¹

그러면 이와같은 生産의 顯著한 擴大率에 比하여 外國貿易의 增加率이 相對적으로 낮은 理由는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앞서말한 商品의 價格이 金의 價値에 比하여 높았던 것, 둘째, 各國의 關稅競爭,² 셋째, 유럽諸國이 戰前의 市場을 잃어버려 輸出 減少에 따르는 輸入力의 減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美國은 이와 같은 狀況下에서도 輸出을 增加하기 위하여 各國에 信用을 계속 부여하였으므로, 各國의 元利金支拂額의 負擔은 점점 增大되고, 그것이 마침내 限界에 達하였을 때에는 貿易의 衡平은 흔들리게 되어 世界的으로 滯貨가 山積하게 되었다. 특히 農産物의 경우가甚하여, 美國의 小麥의 滯貨量은 1930—31年の 世界 總收穫量의 1/5, 砂糖의 그것은 年平均供給量의 1/3에 이르렀다.³

이와 같이 大不況의 原因은 複雜多岐하여 한마디로 說明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根本적으로는 第一次大戰後의 世界經濟가 對立的이고 分裂的인 要素를 強하게 內包하고 있었다는 것, 즉 世界經濟가 <블록>(bloc)化의 傾向을 內包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全世界에 걸쳐서 現實의 生産과 可能的 生産力間에 格差를 야기시켜, 마침내 不況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大不況의 實態는 앞서의 第1表의 世界工業生産指數에 端的으로 表示되어 있다. 즉, 1929年の 工業生産은 유럽諸國에서는 모두 戰前水準을 上回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大不況으로 因하여 1932년에는 모두 低落을 表示하고 있고, 특히 美國의 低落率이 가장 甚하게 나타나 있다(182.6→81.2)

다음에 大不況에 의한 世界貿易의 縮少가 얼마만큼 加速度的이고 長期的이었던가는 第2表에서 알 수 있다. 즉, 大不況勃發年인 1929년부터 9년이 經過한 1938년에 이르러서조차 世界의 總貿易額은 1929年の 40%에 不過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縮少의 加速度化와 長期繼續은 貿易數量의 縮少보다는 商品價格의 低落에 보다 더 큰 原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貿易數量指數는 最低인 경우조차 74.6(1932年)에 머물고 있지만, 價格指數는 42.4(1935年)까지 下落하고 있고, 더욱이 그것은 1938년까지 거의 回復하지 못하고 있다. 이 價格低落에서 가장 큰 打擊을 받은 것은 植民地의 食糧과 原料로, 특히 原料價格의 低落이 가장 甚하였다. 이리하여 植民地的 後進國의 輸出은 惡化하고 金準備는 涸竭하여 外國換去來의 制限을 始作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實質적으로는 金本位制의 離脫을 의미하였다. 大戰後 相對的 安定期를 거쳐 겨우 復歸한 金本位制는, 1931年 5月 오스트리아에서의 銀行休業을 契機로 하여 停止당하게 되어,

1. H. Faulkner, *American Economic History*, 1954 p. 627.

2. 1925~29年間の 關稅引上率은 獨 29%, 佛 38%, 白 60%, 英 112%였다. 1927年 工業製品에 대한 平均關稅率(從價額 ad valorem duty)은 美 34%, 獨 20%, 佛 21%였다. (三菱經濟研究所 『世界貿易』 1956年 p.47)

3. League of Nations, *World Economic Survey*, 1933~34

英國은 同年 9월에, 美國은 1933年3월에 각각 金本位制를 停止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는 벨기에 및 和蘭과 더불어 最後까지 金本位制를 維持하였지만, 諸外國의 換率引下에 의한 輸出攻擊에 對抗하기 위하여 1936年 10月 마침내 停止하게 되고, 벨기에와 和蘭도 이에 뒤따르게 되어 世界經濟의 舊秩序인 金本位制는 이 大不況을 契機로 完全히 崩壞되게 되었다.

<第2表> 世界貿易의 推移 (單位 百萬舊弗)

年 度	輸 入	輸 出	合 計	貿易額指數	價 格 指 數	貿易數量指數
1 9 1 3	21,034	19,564	40,598	59.2	73.5	—
1 9 2 4	28,978	27,850	56,828	82.8	109.4	75.7
1 9 2 5	33,150	31,551	64,701	94.3	113.4	83.2
1 9 2 6	32,117	29,929	62,037	90.4	106.1	85.2
1 9 2 7	33,764	31,516	65,280	95.1	103.5	91.9
1 9 2 8	34,652	32,728	67,380	98.2	103.1	95.2
1 9 2 9	35,595	33,024	68,619	100.0	100.0	100.0
1 9 3 0	29,075	26,477	55,552	81.0	87.1	93.0
1 9 3 1	20,795	18,906	39,701	57.9	67.7	85.5
1 9 3 2	19,968	12,885	26,853	39.1	52.4	74.6
1 9 3 3	12,461	11,714	24,175	35.2	46.7	75.4
1 9 3 4	11,981	11,333	23,314	34.0	43.5	78.2
1 9 3 5	12,243	11,559	23,802	34.7	42.4	81.8
1 9 3 6	13,142	12,581	25,723	37.5	43.7	85.8
1 9 3 7	16,342	15,427	31,769	46.3	48.0	96.5
1 9 3 8	15,319	13,417	27,736	40.4	45.5	88.8

資料 : League of Nations, *Review of World Trade*, 1938~1939, p.60.

이와 같은 慢性的 不況下에서 各國은 모두 貿易 또는 國際收支의 不均衡狀態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均衡化를 도모하여 不況을 克服하고, 또는 外國으로부터의 不況의 波及을 阻止하기 위하여 關稅引上, 貿易數量의 制限, 換率引下, 또는 <담핑>(dumping) 등의 새로운 政策을 各國이 積極的으로 採擇하게 되었다. 이들 政策에 의하여 一國의 不況을 相對國에 波及시킬 때에는, 우리들은 그것을 近隣窮乏化政策 또는 非善隣政策(beggar-my-neighbour policy)이라고 부른다. 이에 대하여 相對國도 一國으로부터의 不況의 波及을 阻止하기 위하여 關稅引上政策이나 數量制限 등에 의한 緩衝政策 또는 報復手段을 강구하게 된다. 이와 같은 政策實施의 動機는 不況對策으로서의 貿易均衡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고, 더욱이 그와 같은 경우에는 縮少均衡의 政策으로 되기 마련이다.

不況期에 있어서의 關稅政策은 主로 關稅引上의 政策으로 나타난다. 1930年代의 大不況期에는 各國 모두 경쟁적으로 關稅의 引上을 斷行하고, 前代未聞의 關稅戰이 展開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 關稅引上의 競爭으로 말할것 같으면, 이미 第1次大戰 直後の 景氣下降期에 始作하

였던 것이다. 不況期에 즈음하여 國內産業의 沈滯와 失業의 增加를 抑制하여 國內均衡을 回復함과 同時에 換率引下의 나라로 부터의 값싼 商品의 侵入을 阻止하고 國際收支를 均衡化시키기 위하여 모든 나라들은 關稅引上의 手段에 呼訴하였던 것이다. 이미 1920年代에 있어서 유럽 諸國은 그 大部分이 關稅引上을 斷行하였고, 美國도 1922年의 'Fordney-McCumber Act'에 의하여 議會의 審議를 通하지 않고 稅率을 變更할 수 있는 權限을 大統領에게 부여하였다. 이 Fordney 法은 다시 大幅的인 稅率引上을 斷行한 1930年의 'Hawley-Smoot Act'로 發展하였는데 (53.2%까지 關稅率을 引上하였음), 美國의 이와 같은 關稅法은 1930年代의 大不況을 背景으로 하여 各國을 크게 刺戟해서 關稅戰을 크게 激化시키는 結果를 招來하였다. 1932년에는 世界의 65個의 貿易國중, 半以上の 나라가 關稅障壁을 높였다.⁴

한편 英國은 1932년에 <오타와協定> (Ottawa Agreement)에서 大英帝國內의 貿易에 대한 關稅障壁을 緩和 또는 撤廢하므로써, 즉 英本國과 當時의 大英帝國을 구성하는 9個國間에서는 特惠關稅制度(preferential duties system)를 適用하므로써 帝國內의 貿易을 增進케 하고, 反對로 大英帝國外에 대하여는 相對的으로 높게 關稅障壁을 設定하므로써, 즉 差別關稅制度(discriminating duties system)를 適用하므로써 諸外國에 대하여 通商上의 有利한 待遇를 받고자 하였다.

이와같은 諸國의 關稅引上政策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첫째, 貿易 또는 國際收支의 均衡을 위하여 輸入稅를 新設하거나 또는 그것을 引上하는 傾向이 顯著하게 대두한 것, 둘째 그때까지의 關稅는 大개 自國産業의 保護를 目的으로 하고 있었음에 대하여, 이 時期에 있어서는 특히 農業不況의 打開對策으로서 農産物의 關稅引上이 行해졌다는 것. 셋째, 關稅政策은 그 施行의 一原因이 되는 財政的 意義를 喪失하고, 輸入阻止策으로서만 採用되게 된 것 등이다.

不況對策으로서의 關稅引上政策은, 貿易의 數量制限政策(數量制限은 輸入의 割當·許可·禁止 등의 方法에 의함)과 더불어, 外國으로부터 自國에로의 不況의 波及을 阻止하고, 그렇게 하므로써 國內經濟의 均衡과 安定을 圖謀하고자 함을 그 目標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結果的으로는 世界貿易을 縮少시키게 되었다.

이와 같이 梗塞化된 世界經濟속에서 남은 唯一한 活路는 <經濟의 블록化>(bloc economy)였다. 앞서 말한 英本國과 大英帝國傘下 諸國家間에서의 特惠關稅制度의 適用 역시 <블록>화를 위한 措置였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沈滯된 世界經濟 속에서 發展을 위한 가장 安易하고 可能性이 높은 方法은 從屬下에 있는 地域을 包含한 支配可能한 나라와 提携하여 <블록>을 形成함에 있었던 것이다. 英國中心의 <스털링·블록>(sterling bloc, 즉, 英貨<파운드>에

(4) 赤松 要, 『貿易論』, 1961, p. 267.

〈링크〉된 〈블록〉), 大戰中 日本中心의 〈大東亞共榮圈〉名稱下의 이른 바 〈日·滿·支블록〉 등, 이 모두가 그와 같은 블록經濟의 代表的인 例라고 볼 수 있다. 힘을 背景으로 한 世界市場의 이와 같은 分斷은 列強諸國家로 하여금 武力衝突의 길로 몰아넣어 마침내 第2次大戰의 勃發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植民地와 自然資源이 不足했던 이른 바 〈갖고 있지 못한나라〉(have-not nations)인 獨·伊·日是 그것이 豊富했던 이른 바 〈갖고 있는 나라〉(have nations)인 美·英·佛을 相對로 하여 戰爭을 挑發하였던 것이다.

이 小論에서는 以上에서 간단히 言及한 第二次大戰勃發의 하나였던 〈블록〉經濟를, 첫째, 戰後에 그것을 어떻게 防止하고 나아가서 世界貿易의 擴大均衡을 도모하고 자 하였던가, 즉 〈大戰以後의 世界貿易發展의 構想〉은 어떠하였던가, 둘째, 그와 같은 世界貿易의 擴大均衡의 發展策이 강구되고 있는 동안에 어떠한 〈變革〉이 또한 發生하였는가 하는 問題 등을 中心으로 하여 高찰하고자 한다. 첫째번의 貿易發展構想의 問題는 이른 바 〈貿易의 自由化〉(liberalization of trade)가 中心課題가 되고, 둘째번의 變革의 問題는 世界貿易의 驚異의인 成長過程中에 發生한 變化를 課題로 삼게 된다. 다시 말하면, 戰後의 世界貿易의 高度의 成長은 主로 先進工業諸國相互間의 貿易增大에 의하여 이루어 졌고, 이와 對照的으로 後進諸國의 貿易은 相對的으로 낮은 成長率을 보이고 있음에 不過하다는 것을 課題로 삼게 된다. 따라서 둘째번 問題에서는 先進工業諸國相互間에서의 貿易, 先進國과 後進國과의 貿易, 그리고 後進諸國相互間의 貿易이 考察의 中心課題가 될 것이다. 다만 맨마지막의 後進諸國相互間의 貿易은 그 比重이 너무나 낮으므로 이에 대한 考察은 생략키로 한다.

Ⅱ. 戰後 世界經濟의 發展構想으로서의 〈貿易自由化〉

以上에서 高찰한 바와 같이 第2次世界大戰의 原因의 하나가 〈블록〉化 또는 〈地域主義〉(regionalism)에 由來하였다고 할진대, 앞으로의 大戰防止策도 또한 이 地域主義를 克服할 수 있는 〈世界主義〉(globalism)에 立脚한 方策이 强구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觀點에 서서, 戰後 世界經濟의 主權을 장악하게 된 美國은 새로운 世界貿易을 구상함에 있어서 ‘보다 自由로운 貿易’을 國際機構를 통하여 實現하고자 企圖하였다. 즉 「브래턴—우즈」協定(Bretton-Woods Agreement)에 의하여 탄생을 보게 된 「國際通貨基金」(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과 「國際復興開發銀行」(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IBRD), 그리고 「國際貿易機構」(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ITO)의 세가지 國際機關에 의하여 UN 憲章의 前文에 表示된 ‘보다 큰 自由밑에서의 社會的進歩 및 보다 좋은 生活水準의 向上’을 促進하고자 하였다. 附言하면, IMF는 높은 水準의 雇傭 및 實質所

得의 促進・維持와 生産資源의 開發에 寄與하는 한편, 換의 安定을 促進하고, 世界貿易의 增大를 妨害하는 外國換制限의 除去에 대하여 援助를 行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同時에 加盟國의 國際收支의 不均衡의 持續期間을 短縮하고, 그리고 그程度를 輕減할 것에 協力하는 機構로서 發足하였다. 다음에 IBRD는 主로 戰爭에 의하여 破壞되고, 또 解體된 經濟를 回復함과 同時에, 生産施設의 平時需要에로의 再轉換과, 後進國에 있어서의 生産施設 및 生産資源의 開發을 包含한 生産的目的을 위한 資本投下와, 國際貿易의 長期에 걸친 均衡의 擴大 및 國際收支의 均衡維持를 容易케 하기 위한 協力에 그 目標을 두고 있다. 끝으로 ITO의 構想은 1941年 8월에 發表된 「大西洋憲章」(The Atlantic Charter)과 1944年の 「부레튼・우즈」協定에 관한 會議 사이에 美國을 中心으로 討議되었던 것인데, 이에 관하여는 우리의 論題와 밀접하게 關聯되는만큼 좀 더 詳論하기로 하자.

1948年 3月 하바나(Havana)에서 世界53個國에 의하여 調印된 「國際貿易機構憲章」(Charter for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은 아직 加盟國의 過半數의 批准을 얻지 못하여 지금 까지 實施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憲章의 精神은, 第2次大戰後의 國際經濟諸機構의 包括的인 構想을 파악함에 있어서 대단히 重要한 意義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TO 憲章은 1945年 12月 美國政府로부터 發表된 「世界貿易 및 雇傭의 擴張에 관한 提案」(Proposals for Expansion of World Trade and Employment)에 發端하여 UN 經濟社會理事會(ECO SOC)에 의한 準備와 數次에 걸친 國際會議을 거쳐, 하바나의 「國際貿易 및 雇用會議」(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de and Employment)의 總會에서 調印된 것이다.

ITO 憲章의 目的은, 「모든 나라가 그 經濟的 繁榮 및 發展을 위해 必要한 市場, 生産品 및 生産手段에 均等한 條件下에서 接近하는 것을 促進할 것」, 그러므로 「相互的 및 互惠的인 基礎위에서 關稅 및 其他의 貿易障害의 輕減, 및 國際通商에 있어서의 差別待遇의 除去를 促進할 것」과 同時에, 「各國의 貿易 및 經濟的 發展의 機會를 增大하는 것에 의하여, 諸國이 世界通商을 破壞하고 生産的 雇傭을 低下시키고 또 經濟的 進歩를 遲滯시키는 것과 같은 諸措置를 抑制하는 것을 可能케 할 것」으로 表現되어 있다. 따라서 憲章의 이와 같은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세가지 原則, 즉 ① 自由通商의 原則, ② 衡平 및 安定의 原則, ③ 擴張均衡의 原則이 준수되지 않으면 안된다.

第1의 自由通商의 原則은, 서로 互惠的인 基盤 위에서 關稅를 輕減하고, 貿易의 數量制限을 排除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原則에 입각해서 加盟國은 다른 加盟國으로부터 要請을 받게 될 때에는, 關稅引下의 交渉에 應할 義務가 부과되어 있고, 貿易의 數量制限策도 곧 撤廢되는 것이 期待된다. 그러나 ITO 憲章은 一舉에 完全한 自由貿易을 實現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自由로운 貿易'에로의 接近을 企圖하고 있다는 點에 留意하지 않으면 안된다.

第2의 衡平및安定の 原則중, 衡平의 原則은 最惠主義, 無差別待遇의 原則에 關聯되는 것으로, 各國은 서로 平等 公平한 待遇를 부여받는다라는 것이다. 다음의 安定の 原則은 換時勢를 他國通貨와의 衡平한 關係에서 維持·安定하거나 또는 政府間的 國際商品協定에 의하여 國際價格을 安定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第3의 擴張均衡의 原則은, 第2次大戰後에 이르러 비로소 自覺되게 된 것으로, 1929年以後의 大不況時에 國際貿易이 甚히 縮少된 經驗에 입각하여, 國際貿易을 積極的으로 擴大할 方策의 基準으로 案出되게 된 것이다. 이 原則은 ITO 憲章의 첫머리의 「諸國의 實質所得과 有效需要의 增大를 確保하면서, 商品의 生産·消費·交換을 增加시키고, 擴大均衡的인 世界經濟에 寄與한다」는 句節에 明白히 表現되어 있고, 그리고 이에 뒤따르는 條項에 規定된 先進國에 의한 後進國의 工業및 經濟一般의 發展에 대한 援助나 生産的投資의 獎勵 등도 이 擴大均衡의 原則의 表示라고 볼 수 있다. 美國에 의한 「마아셜 플랜」(Marshall Plan)⁵ 이나 英國을 中心으로 한 「콜롬보 플랜」(Colombo Plan)⁶ 등도 그와같은 目的을 가지고 案出된 것이다. 그리고 UN의 歐洲經濟委員會(ECE)나 아시아極東經濟委員會(ECAFE)등도 以上과 같은 世界貿易의 自由化와 發展을 위하여 活動하고 있는 國際機關들이다.

要件대 IMF에 있어서는 主로 國際通貨(international currency)의 問題를 中心으로 換의 安定을 도모하고, 多角的決濟(multilateral settlement)의 길을 確立하고, IBRD에 있어서는 長期國際投資(long-term international investment)의 問題를 中心으로 戰禍로부터의 復興과 後進國經濟開發을 위해 必要한 融資를 促進하고, 그리고 ITO는 直接的인 貿易制限의 撤廢와 關稅의 引下에 의하여 貿易의 自由化를 도모하고자함을 그 根本目的으로 하였다.

그런데 ITO는 앞서 말한 것처럼 加盟國의 半數以上の 批准을 얻지 못하여 未發効의 狀態에 있었는데, 1949年 10月 제네바에서 開催된 第1回 關稅交涉會議에서 이 未發効의 ITO의 役割의 一部分에 代身하는 것으로서 「關稅및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의 締結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23個國이 이에 參加하고, 48年부터 實施되었다. 元來 GATT는 ITO가 實現하기까지의 暫定的措置로서, 前記의 自由通商의 原則과 衡平待遇의 原則을 採用한 것이다. 그것은 關稅引下交涉을 多數國間에서 同時에 行하고, 多數國相互間에 成立한 關稅의 讓許를 最惠主義의 適用에 의해 加盟諸國의 全般에 波及시키고자 企圖하고 있다. 그리고 GATT 運營의 國際的인 組織으로서 「貿易協力機構」

5. Marshall Plan의 正式名稱은 「歐洲復興援助計劃」(European Recovery Program)이다. 이 計劃의 實施를 위해 48年4月 「歐洲經濟協力機構」(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OEEC)가 設立되었다. 그리고 이 OEEC는, 50年9月 「歐洲決濟同盟」(European Payment Union=EPU)을 成立시켜 유럽諸國間의 雙務主義的貿易을 多角的決濟베이스로 引上하였다.

6. 英國의 東南亞開發計劃. 正式의 名稱은, 1950年11月27日付의 英政府白書 「南 및 東南아시아의 協力的 經濟開發을 目的으로 하는 콜롬보 플랜」(The Colombo Plan for Cooperative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and South-east Asia).

(Organization for Trade Cooperation=OTC)가 設定되어 ITO의 構想에 接近하여 갔다.

그러나 以上에서 言及한 貿易自由化의 構想은, 19世紀 中葉에 英國에 의하여 主張된 것과 같은 自由貿易運動과는 相異한 것이다. 當時의 自由化는, 古典學派 經濟學이 自由貿易을 學問的으로 뒷받침한 이른 바 比較生産費說(theory of comparative costs)의 경우처럼, 各國이 自由貿易制下에서 各各 比較優位의 生産部門에 特化하므로써 國際的不均衡은 어느 程度 除去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입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第2次大戰後의 構想은 超國家的인 國際機構를 設立하고, 그것을 통하여 各國의 自主的인 政策에 어느 程度의 制限을 加하면서 <自由化>라는 共通의 目的을 達成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景氣循環을 自然의 運行에 그대로 放置해 버리면, 失業이 發生하고 이것이 慢性化할 危險性이 있고, 한편 後進國의 經濟的基盤의 改善을 放置해 버리면, 世界經濟의 不均衡은 是正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擴大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새로운 世界貿易의 構想은, 그것을 이와 같은 國際機構를 통하여 統制하고 調整하면서 '보다 自由로운 貿易', '多角的·無差別의 世界貿易'(multilateral and non-discriminative world trade)을 實現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GATT에서 規定된 그와 같은 無差別·多角主義는 發展史的으로는 戰時中까지 遡及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美國은 英國에 대한 1941年의 武器貸與法(Lend Lease Act)의 實施에 즈음하여, 그 條件으로서 戰後의 世界經濟再建에 있어서 自國과 協力해서 無差別·多角主義를 採用할 것을 英國으로부터 約束받았던 것에 이미 表示되어 있다. 다음에 1942年의 相互援助協定(Mutual Aid Agreement) 第7條에서는, ① 如何한 나라도 美國과 英國이 行하는 戰後協力에 參加할 수 있다. ② 다만 參加하는 나라는 適當한 國際的 및 國內的措置에 의하여, 生産·雇用·財貨의 交換 및 消費의 擴大에 參加할 것. ③ 國際通商에 있어서의 모든 形式的 差別措置의 撤廢, 關稅 其他의 貿易障害의 輕減에 參加할 것 등으로 規定되어 있어, 無差別·多角主義의 實行을 明確히 表明하고 있다. 美國의 主張에 대한 英國의 이와 같은 協力を 中心으로 戰後의 自由化政策은 IMF와 GATT의 創設에 의하여 實施의 段階에 들어서고, 그리고 自由化의 義務는 IMF의 第8條와 GATT의 第11條에서 각각 規定되어 있다.⁷

以上과 같은 貿易自由化의 旗幟아래 出發한 유럽諸國에 대하여 그 以後의 行路는 그 렇게 平坦한 코스는 아니었다. 經濟의 再建·復興과 더불어 그것은 徐徐히 進行되었던 것이다. 英國은 1946年 美國으로부터 50億弗의 借款을 받아, 47년에 <파운드>貨의 自由交換性⁸을 回復

7. 貿易自由化의 義務는 IMF의 號8條와 GATT의 第11條에서 각각 規定되어 있지만, 그러나 同時に 發展이 뒤떨어져 있는 나라들의 強力한 主張에 의하여, 國際收支의 擁護를 理由로, 貿易制限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을 IMF 第14條, 및 GATT 第12條(後進國의 경우는 第18條)에 規定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그것은 元來의 企圖와는 距離가 멀게 되었고, 締約國에 따라 解釋이 구구하여 規約遵守를 期할 수 없게 되었다.

8. 通貨의 自由交換性이라함은 어떤 나라의 通貨를 外貨와 自由롭게 交換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現在 실제로 各國通貨의 自由交換性을 問題로 하는 경우에는 美弗과의 自由交換을 말한다. 元來 國際間的 決際에는 金

하였지만, 多額의 〈달라〉流出로 말미아마 5週間後에는 交換性を 停止할 수 밖에 없었다. 그와 같은 措置는, 그 以後의 推移로 判斷하건대, 約 10年이나 時期尙早였었다. 1948년부터 開始된 〈마아셜〉 援助는 유럽의 經濟復興에 크게 이바지하였지만, 그러나 유럽 經濟가 本格的으로 貿易의 自由化에 着手하기 위하여는 〈파운드〉의 平價引下를 비롯한 換調整을 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해 國際收支對策으로서 〈파운드〉貨가 £1.00=\$4.03로부터 £1.00=\$2.80로 一舉에 30.5%引下되고, 其他의 20餘個國의 通貨도 이에 準해서 引下가 斷行되었다. 換引下를 轉機로 하여 유럽 經濟는 自由化에로 巨步를 내딛게 되었다. 이미 〈파운드〉貨 引下前의 49年 7月 「歐州經濟協力機構」(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OEEC) 理事會는 域內貿易의 可及的 完全한 自由化達成을 위하여 輸入數量制限의 漸進的除去에 必要한 措置를 取할 것을 決議하였었다. 계속하여 同年11月에는 12月15日까지 加盟國으로부터의 民間輸入의 50%에 대하여는 數量制限을 廢止할 것을 決定하여 거의 모든 나라가 이를 實施하게 되었다.

다음해 1950年은 貿易自由化에 대한 하나의 劃期的인 해였다. OEEC 理事會는, 50年1月의 理事會에서 다음의 두가지 條件을 設定하여 貿易自由化를 擴大할 것을 決定하였다. 첫째는 「域內無差別貿易規則」의 作成이고, 둘째는 OEEC 諸國間의 通貨의 多角的인 交換을 包含하는 滿足할만 한 「支拂計劃」을 實施하는 것이 었다. 첫번째에 關係되는 것이 8월에 採擇된 이른바 「自由化規約」(Code of Liberalization)이다. 이 自由化規約에 의하여 各加盟國은, 一定期日에 民間貿易의 一定比率를 各 〈카테고리〉別로(食糧, 原料, 製品의 세가지別로) 自由化할 義務를 부과받고, 輸入制限에 대한 完全한 自由裁量權을 포기하고, 國內市場을 開放하는 代身에 他國의 自由化措置에 의하여 自國의 輸出이 便宜를 提供받도록 되었다. 둘째번에 關係되는 것이 同年9月 創設된 「歐州決済同盟」(European Payment Union=EPU)이다. EPU는 多角的 決済制度和 自動的 信用供與라는 두가지 機能에 의하여 西歐間의 貿易決済를 容易하게 하였다.

1950年以後 西歐經濟는 이 自由化規約과 EPU의 도움을 가지고 貿易의 自由化를 本格的으로 推進하였다. 自由化를 實現하는 方法으로서는, 먼저 OEEC 域內의 自由化가 推進되었고, 그리고 OEEC 域內의 自由化가 어느 程度 進展한 다음에 對弗自由化가 積極적으로 推進되었던 것이다.

(gold)이 使用되어 왔는데, 美國은 外國의 政府나 中央銀行이 美國에 대하여 要求하면 即時 金을 賣渡해 주기 때문에, 各國은 弗의 保有高가 많게 되면, 美國으로부터 金을 買入한다. 따라서 弗은 金과의 交換이 自由이고, 實質的으로는 金本位制(gold standard system)와 다름이 없고, 그러므로 國際間의 決済에는 널리 弗이 使用된다. 이와 같은 理由로 各國은 對外決済의 準備을 위하여 弗을 保有하게 되는데, 만약 自國通貨의 弗과의 '自由交換'을 許諾하면, 自國通貨가 弗로 交換되어 保有中의 弗이 減少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保有中의 弗이 充分히 있고, 그리고 國際收支도 黑字여서 그것이 激減할 憂慮性이 없다는 確信을 갖게 될 때까지는 換管理를 行하고, 自國通貨의 弗과의 自由交換을 制限한다.

따라서 OEEC 諸國의 貿易自由化率에는 域內自由化率과 對非自由化率의 두가지가 있다. 域內自由化率은 自由化規約에 의하여 每年 다음의 方式으로 算定된다.

$$\frac{B}{A-C} \times 100$$

A...當該國이 OEEC 諸國으로부터 基準年(大部分의 나라는 1948年, 但 西獨은 1949年, 오스트리아는 1952年, 베넬룩스는 1953年을 基準年으로 採用)에 실제로 輸入한 總額(CIF, 民間輸入・政府輸入을 不問함).

B...當該國이 當該期間에 輸入數量制限을 行하지 않았던 品目, 즉 自由化하고 있는 品目の 基準年에 있어서 OEEC 諸國으로부터 실제로 輸入한 總額.

C...當該期間에 政府計定으로 輸入된 品目の, 基準年에 있어서 OEEC 諸國으로부터의 輸入額

以上の 算式에 의하여 域內自由化率은 ① 食糧 ② 原料品 ③ 製造品の 세가지 <카테고리> 別로 算出되는데, 다만 이들 세가지 <카테고리>의 算術平均이 全體의 域內自由化率이 아니고 이들 <카테고리>에 각각 <웨이트>(weight)가 고려되어 算出된다.⁹

그런데 以上の 算式에서 A는 항상 一定하고, 自由化率을 年年 變化시키는 것은 B 및 C이다. B는 輸入數量制限으로부터 解除되는 品目, 즉 自由化되는 品目이 增加함에 따라 增加하고, 따라서 自由化率을 引上하게 된다. C는 政府計定으로 輸入되는 品目이 民間輸入으로 移轉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一定하다.

다음에 對非自由化率은 域內自由化率의 算式과 同一한 原理로, 美國 및 카나다로부터의 輸入의 自由化狀況을 表示하도록 算出된다. OEEC 諸國의 貿易自由化率이 域內自由化率과 對非自由化率의 두가지로 分類된 것만 보아도, OEEC 諸國의 貿易自由化가 대체로 어떠한 內容의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즉 OEEC 諸國의 自由化는 元來 OEEC 諸國이 서로 步調를 맞추어 貿易의 自由化를 推進하기 위한 手段으로서 採擇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OEEC 諸國의 自由化는 域內的 自由化를 目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輸入全體에 대한 自由化를 目的으로 하고있는 것은 아니다.

域內自由化率의 推移를 보면, 韓國動亂後, 西獨・프랑스 등의 自由化停止에 의하여 一時 低下하였지만, 域內諸國의 協力으로 이를 無難히 克服하고, 以後 順調롭게 上昇하였다. 다음에 57년에 低下를 보였지만, 이때는 프랑스가 國際收支의 危機로 因하여 自由化率을 零減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도 다음해에는 解決되어 59년에는 90%를 넘게 되었다. 한편 53年頃부터는 對非自由化(對美・加)가 推進되어 着實한 進展을 보게 되었다. 60年 3月에는 86%에 達하고, 그後 계속하여 上昇을 보게 되었다. 이리하여 60年 後半期에 이르러서는 OEEC 主要國

9 『國際經濟』 第12號 「世界經濟の新展開」, 1961, p. 56.

중 OEEC 域內의 對弗地域과의 差別을 行하고 있는 나라는 겨우 이탈리아 정도이고, 다른 나라는 差別을 全廢하던가 또는 僅少한 것에 不過하다.¹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實施를 보게 된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도 지금까지 소극적이었던 貿易自由化를 積極적인 姿勢로 前進시키려는 것이며, 貿易計劃의 先進國 타인을 採擇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GATT 加入과 「케네디·라운드」¹¹에의 參加로 貿易自由化를 指向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이 制度에로의 轉換은 當然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戰後의 自由化는 지금까지의 例를 보던 先進諸國을 中心으로 推進된 것으로, 後進諸國은 거의 自由化政策을 採用하고 있지 않다. 後進國은 經濟開發計劃을 推進하기 위하여, 直接的인 貿易制限·換管理·輸入稅의 操作 등의 手段에 의하여 消費財의 輸入制限을 強化하고 있다. 그러나 消費財輸入의 극심한 抑制은 國內에 있어서의 消費財價格의 上昇을 야기시키고, 〈인플레이션〉의 昂進이 되므로, 비록 一次生産物의 輸出이 不振하게 된다. 할지라도, 輸入抑制에는 限度가 있다는 事情 등으로, 貿易收支의 赤字가 급격하게 增加하게 된다. 이와 같은 背景下에서 後進諸國에서는 貿易의 自由化는 심히 뒤떨어져 있는 形便이다 貿易의 自由化는 世界의 大勢라는 것과 같은 主張은, 世界라는 말이 美國이나 유럽諸國과 같은 先進諸國만을 指稱한다면 別問題지만, 後進國도 包含해서 말하는 경우에는 正當하지 못하다. 後進諸國은 대부분 貿易의 自由化政策을 採用하고 있지 않다는 現實을 無視해서는 안된다.

Ⅲ. 〈貿易自由化〉의 進展과 先進國 相互間에서의 地位變化

以上과 같은 貿易自由化의 進展은 戰後의 世界貿易量을 크게 增加시켜 諸國의 經濟成長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世界貿易量은 輸出額으로 볼 때, 1948년의 530億弗에서 1966년에는 2,000億弗로 增大되므로써, 18年 동안에 約 4倍의 飛躍的 增加를 表示하고 있다. 그리고 그중에서 約 2/3는 先進國에 의한 輸出이었다. 世界貿易量이 이렇게 크게 增加하고 있는 동안에 1950年代末부터 先進國相互間에서는 하나의 큰 變化가 일어나기 始作하였다.

생각컨대, 第2次大戰直後, 世界經濟에 있어서의 最大의 特徵은 아마도 美國의 卓越한 生産

(10) 島田喜仁·並木信義 共編, 『貿易の理論と政策』, 1961, p. 219.

(11) 1964年10月 美國은 새로 「通商擴大法」을 制定하고 그것에 의하여 「GATT의 關稅一括引下交渉」(이른바 「케네디·라운드」)의 體制를 創出하고자 企圖하였다. 이 새로운 「通商擴大法」의 內容은 大統領의 關稅引下에 관한 權限을 擴大한 것으로, ①關稅率 50%引下의 一般權限, ② EEC의 域外輸出과 美國의 輸出의 合計가 EEC의 域內貿易을 除外한 世界貿易의 80%以上을 占는 品目の 關稅를 全廢할 수 있는 以外에, 農産物에 대하여는 80%品目이 아니라도 關稅率을 50%를 넘어서 引下할 수 있는 對 EEC 特別權限, ③ EEC의 同意를 條件으로 하는 熱帶農産物의 輸入制限 또는 關稅의 撤廢權限 ④ 關稅率 5%以下의 品目の 關稅全廢權限 등을 內容으로 하는 것으로, 이 擴大法의 企圖는 두말할 것도 없이 對유럽輸出의 擴大를 통하여 惡化하고 있는 美國의 國際收支의 改善을 도모함에 있다.

性 및 生産能力을 背景으로 하여, IMF와 GATT를 中心으로 多角·無差別主義를 原則으로 하는 世界的인 (global) 貿易自由化를 國際政策으로 推進하였다는 點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 機構가 規定하는 自由·多角·無差別의 內容은 各國의 生産力의 格差나 不均衡 때문에 곧 實現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후 美國은 莫大한 對外經濟援助 對外軍事費支出 및 對外投資를 行하였으므로, 世界經濟에 있어서의 美國의 優位는 1957~58年을 境界로 하여 低下하기 始作하고, 國際收支(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s)의 赤字는 年平均 30億弗以上에 達하여 終戰直後와는 正反對의 樣相을 나타나게 되었다.

〈第3表〉

美國의 國際收支 (年率)

(單位: 10億弗)

	1946~49	1950~57	1958~61
財貨·서비스純受取額	7.9	4.5	5.3
純支出額	民間資本	1.0	3.0
	軍事支出	0.6	2.2
	政府贈與·借款	6.2	2.6
	純支出額計	6.8	5.8
國際收支殘高	+1.1	-1.3	-3.5
金移動(+流出)	-1.1	+0.2	+1.4
外國弗殘高(+增加)	—	+1.1	+2.1

資料: 美商務省, *Survey of Current Business*

第3表에 의하면, 1946~49年의 美國의 國際收支의 年率計算은, 68億弗의 純支出을 카버하고도 아직 11億弗의 黑字를 表示하였었는데, 1950~57年에는 國際收支殘高는 年平均 13億弗의 赤字로 逆轉하고 있다. 이赤字는 商品貿易이나 貿易外去來(즉 無形貿易 invisible trade)에 의한 것이 아니고—이 方面에서의 黑字의 幅은 以前보다는 적어졌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黑字였음—, 海外에의 軍事費支出, 政府의 贈與·借款, 民間資本輸出의 增加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現象은 1958年에 유럽大陸에서 發足を 보게 된 EEC의 出現以後에 더욱 深刻性을 表示하여, 지금까지의 달러不足(dollar shortage)은 달러危機(dollar crisis)의 樣相으로 變化하게 되었다. 즉, 1958~61年間의 美國의 國際收支의 赤字는 年率 35億弗의 巨額에 達하고 있다. 더욱이 注目할 일은 1958年以後부터는 金의 流出現象이 顯著하게 나타났다. 第4表에 의하면, 1948年에는 美國의 全保有高는 243億 9,900萬弗로 資本主義世界의 總保有高의 73%를 占하고 있었는데, 1963년에는 158億 800萬弗로 約 38%에 減少하고 있다.

美國經濟의 이와 같은 相對的인 比重低下의 樣相을 먼저 工業生産面에서 보면, 第5表와 같다. 이表에 의하면, 1953年을 境界로 하여 美國의 生産은 크게 停滯를 보이고 있다. 1959年의 경우를 보면, 英國以外的 歐州主要國이 모두 1953年에 比하여 50%以上の 生産增加를 表示하고 있음에 대하여, 美國은 단지 16%의 生産增加를 보이고 있음에 不過하다. 그 結果 終

<第4表>

美國의 金準備포지손의 推移

(單位: 百萬弗)

年 度	金保有高 (A)	國內準備 (B)	自由準備 (C) = (A)-(B)	外國通貨當局保 有弗資產 (D)	金準備포지손
1946	20,706	10,575	10,131	3,044	+7,087
1947	22,868	11,138	11,730	1,832	+9,898
1948	24,399	11,738	12,661	2,836	+9,825
1949	24,563	10,597	13,966	2,908	+11,058
1950	22,820	10,849	11,971	3,426	+8,545
1951	22,873	11,564	11,309	3,481	+7,828
1952	23,252	11,989	11,263	4,463	+6,800
1953	22,091	11,995	10,096	5,669	+4,429
1954	21,793	11,656	10,137	6,770	+3,367
1955	21,753	11,819	9,934	6,953	+2,981
1956	22,058	11,931	10,127	8,045	+2,082
1957	22,857	11,913	10,944	7,905	+3,039
1958	20,582	11,849	8,733	8,665	+68
1959	19,507	11,994	7,513	9,154	-1,641
1960	17,804	11,698	6,106	10,212	-4,106
1961	17,063	11,813	5,250	10,940	-5,690
1962	16,156	12,218	3,938	11,963	-8,025
1963	15,808	13,192	2,616	12,470	-9,854

資料: Federal Reserve System, *Federal Reserve Bulletin*.

戰直後 世界の 工業生産의 60%를 占하고 있었던 美國의 生産의 比重은 1959년에는 約 47%로 低下하고 있다.

다음에 世界輸出에 占하는 美國의 比重을 보기로 하자. 第6表에 의하면 終戰直後인 1947년에는 世界輸出의 約 1/3(32.5%)을 占하고 있었던 것이 1959년에는 戰前水準과 거의 비슷한 17.4%에로 下落하고 있다. 敗戰直後 거의 零에 가까운 0.5% 또는 0.4%로 沒落한 西獨과 日本은 經濟復興과 더불어 각각 9.8%, 3.5%로 그 比重을 높이고, 이탈리아도 戰前水準의 半인 1.4%로부터 戰前水準을 上回하는 2.9%로 增加하였다. 프랑스 또한 戰前水準을 上回하는 5.6%에 達하였다.

다음에 先進工業國의 製造工業製品의 輸出만을 뽑아서 보면, 第7表와 같다. 이表에 의하면 여기에서도 第6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美國의 比重이 每年 下落을 거듭하고 있고, 反面 西獨이 눈부신 躍進을 보이고 있다. 1959년에 있어서는 美國의 比重은 21.3%, 西獨의 그것은 19.1%로 그 差는 단지 2.2%에 不過하다. 또 英國의 比重도 1950年の 25.5%로부터 1959年の 17.3%로 점차로 下落을 表示하고 있다. 프랑스는 一時 下落을 표시하였지만, 1958年 12月의 通貨改革(平價引下, 1달러=420 후랑→1달러=493.706후랑, 및 貨幣呼稱單位, 100 舊후랑

<第5表> 世界の工業生産 (1953=100)

	世界	美國	英國	西獨	佛蘭西	伊太利	日本	蘇聯
1950	84	84	94	72	89	78	55	69
1951	91	90	98	85	99	89	74	80
1952	93	93	94	91	98	91	82	89
195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54	101	93	108	112	109	109	108	113
1955	112	104	114	129	117	119	117	127
1956	117	109	114	139	128	129	144	141
1957	121	110	116	147	138	138	167	155
1958	118	102	114	152	145	143	169	170
1959	130	116	121	162	152	158	210	189

資料 : U.N.,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第6表> 世界輸出에 占하는 主要資本主義諸國의 比率

	1938	1947	1957	1958	1959
美國	14.1	32.5	20.9	18.8	17.4
英國	11.2	9.8	9.3	9.4	9.3
西獨	10.1	0.5	8.7	9.3	9.8
佛西蘭	4.1	4.0	5.1	5.4	5.6
伊太利	2.4	1.4	2.6	2.7	2.9
日本	5.1	0.4	2.9	3.1	3.5
카나다	4.4	6.0	5.2	5.4	5.4

資料 : U.N. *Statistical Yearbook*, 1959.

<第7表> 先進工業國의 製造工業製品輸出 (%)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美國	27.3	26.6	26.2	25.9	25.2	24.5	25.3	25.4	23.3	21.3
英國	25.5	21.9	21.5	21.2	20.3	19.6	19.0	18.0	17.8	17.3
西獨	7.3	10.0	12.0	13.3	14.8	15.4	16.4	17.5	18.6	19.1
佛蘭西	9.9	10.0	9.2	9.0	9.0	9.3	7.8	8.0	8.6	9.2
日本	3.4	4.3	3.8	3.8	4.7	5.1	5.7	6.0	6.0	6.7
其他	26.6	27.2	27.3	26.8	26.0	26.1	25.8	25.1	25.7	26.4

資料 :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Economic Review*, Sep. 1960.

＝1新후랑)의 成功에 의하여 다시 從前의 水準에 回復하였다.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1950年代末頃에 美國의 國際收支가 赤字를 거듭하여 〈달라不足〉의 狀態로부터 〈달라危機〉의 狀態로, 즉 終戰直後와는 正反對의 樣相을 나타냈을 무렵, 유럽에서는 「歐州經濟共同體」(European Economic Community=EEC)의 出現을 보게 되었다. (正確하게 말하면, 1958年 1월에 發足하였음). EEC (그 加盟國家는 佛·西獨·伊·白·和·룩셈부르크의 6個國)는 하나의 새로운 型의 〈블록〉으로서, 域內에 關稅同盟을 체결하고 域內 貿易의 完全한 自由를 표방 할 뿐만 아니라, 資本과 勞動의 完全自由移動도 意圖하고 있고, 그리고 農業·通商·運輸의 세 部門에 걸쳐서 政策의 一致를 目標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加盟에 대하여는 ①水平的 結合〈블록〉으로서, 表面的으로는 支配·從屬의 關係가 없고, 더욱이 經濟力 및 經濟發展段階가 거의 비슷한 國家의 結合일 것, ②合意的 〈블록〉으로서, 〈블록〉에의 加盟이 加盟國의 自由意思에 委任되고, 加盟에 즈음해서는 表面的으로 壓力이 加해지지 않을 것, ③地域〈블록〉으로서, 加盟國이 地理的으로 接近하고 있고, 未加盟의 近隣諸國에 대하여는 加盟에의 門戶가 開放되어 있을 것 등이 그 內容으로 되어 있다.¹²

EEC는 發足以後 括目할만한 發足を 이룩하여, 資本主義市場의 總輸出額에 占하는 EEC의 比率은 1958年の 24.5%로부터 1964년에는 28.0%로, 輸入은 23.3%로부터 28.2%로 크게 上昇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美國의 比重은 同一한 期間內에 18.5%로부터 17.3%에로 下落하고 있고, 英國의 그것도 9.3%로부터 8.1%로 下落하고 있다.¹³ 이것은 EEC의 經濟力의 膨脹과 높은 成長率에 의하여, 美國經濟力의 絶對的 優位性이 低下하고 있음을 端的으로 表示하는 셈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EEC의 經濟力의 增大와 이에 따른 美國經濟力의 比重低下의 原因은 도 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EEC 加盟諸國이 設備投資를 活潑히 行하였기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第8表에 의하면 1951~58年の 7年間に 걸쳐서의 美國의 固定資本投資率 (在庫投資以外的 國內總資本形成額을 GNP로 除하여 얻어지는 比率을 말한다. 따라서 民間 設備投資뿐만 아니라 政府固定投資도 包含된 投資率이 計算된다)은 대략 16~17%이다. 이에 대하여 EEC 加盟 6個國중, 美國水準에 達하지 못한 나라는 벨기에뿐이다. 그러나 1955년부터는 벨기에도 美國水準에 거의 도달하고 있다. 其他의 5個國은 52년까지는 어느 나라도 20% 未滿이었던 것이, 53년부터는 프랑스를 除外하고는 대략 20%水準에 도달하고 있다. 54년부터는 年度에 따라 多少의 變動은 있었지만, 21~22%의 水準으로 上昇하고 있고, 프랑스도 53年の 15.9%로부터 점차로 上昇하여, 58년에는 마침내 21.5에 도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EEC

12. 『國際經濟』 第12號, EEC의 本質について, p. 137.

13. 原 覺天, 『世界經濟의 變革と發展』. 1967, p. 111.

<第8表> EEC 加盟 6個國에 있어서의 固本資本投資率 (%)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西 獨	18.6	19.0	19.9	20.9	22.6	22.9	22.0	22.0
프 랑 스	16.8	14.6	15.9	16.5	17.5	18.1	18.9	21.5
이 탈 리 아	18.5	19.7	19.3	19.7	20.2	20.8	21.6	20.6
和 蘭	19.3	18.6	20.8	21.1	22.7	24.6	24.8	22.5
벨 기 에	13.6	13.9	14.6	15.0	15.5	16.5	16.1	—
룩셈부르구	17.0	17.5	24.2	23.3	22.4	19.9	23.8	—
美 國	16.0	15.8	16.0	16.5	17.1	17.6	17.4	16.3
英 國	12.6	12.8	13.6	14.0	14.7	14.9	15.2	15.3
日 本	20.1	21.0	22.2	19.6	20.2	24.4	27.1	26.9

資料 : U.N. Yearbook of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 固定資本投資率 = $\frac{\text{在庫投資以外の 國內總固定資本形成}}{\text{GNP}}$

加盟諸國은, 벨기에를 除外하고는, 美國에 比하여 GNP 중 5~6% 만큼 더 設備投資를 行하였으므로, 그만큼 生産力의 增強・競爭力의 強化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相對적으로 높은 固定資本投資의 結果로서, EEC 加盟諸國의 競爭力이 美國에 比하여 과연 얼마만큼 強化되었을까? 競爭力強化의 指標로서는 賃金코스트의 指數를 살펴 보는 것이 가장 適切할 것이다. 여기에서 賃金코스트라 함은 單位時間當 賃金を 單位時間當 產出量으로 除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產出量單位當 賃금이 얼마만큼 所要되었는 가를 표시한다. 이 指數가 基準時點보다 低下하게 되면, 그만큼 合理化가 進行되어 競爭力이 強化되었다고 볼 수 있다. 第9表에 의하면, 1953年을 基準으로 하여 58年의 美國의 賃金코스트는 18% 上昇한데 對하여, 프랑스는 7%, 西獨도 7%, 이탈리아는 -7%, 英國은 26%로, 英國을 除外하고는 모두 美國보다 上昇도가 낮다. 즉 EEC 加盟諸國의 競爭力이 그만큼 美國보다는 強化되었다고 볼 수 있다.

EEC의 이와 같은 驚異的인 發展에 따라 英國도 이에 對抗하기 위하여 「歐州自由貿易聯合會」(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EFTA, 英國・瑞典・노르웨이・丁抹・오스트리아・瑞西・포르투갈의 7個國으로 구성됨)를 結成하기에 이르렀다. 여하튼간에 EEC 加盟諸國의 競爭力強化와 美國의 比重低下의 結果로서, 1958年以後부터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美國의 國際收支는 巨額의 赤字를 보게 되고, 金準備狀態를 惡化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美國은 從來처럼 海外軍事援助 및 對後進國經濟援助를 正常貿易의 輸出超過分만을 가지고는 充當할 수 없

<第9表> 西歐主要諸國 및 美國의 生産性과 賃金費用의 推移 (1953=100)

	美 國			프 랑 스			西 獨			이 탈 리 아			英 國		
	1 間 人 單 產 出 時	賃 金	賃 金 코 스 트	1 間 人 單 產 出 時	賃 金	賃 金 코 스 트	1 間 人 單 產 出 時	賃 金	賃 金 코 스 트	1 間 人 單 產 出 時	賃 金	賃 金 코 스 트	1 間 人 單 產 出 時	賃 金	賃 金 코 스 트
1954	98	102	105	108	107	98	105	103	97	107	103	97	105	106	101
1955	102	106	104	117	115	98	112	109	98	117	109	94	108	114	106
1956	103	112	109	126	124	99	116	119	103	124	116	94	108	124	114
1957	103	117	113	132	134	102	126	133	106	129	120	93	110	131	119
1958	102	120	118	140	150	107	133	143	107	135	125	93	110	138	126

ECE, *Economic Survey of Europe*, 1958.

게 되었다.

EEC의 出現은 美國의 立場에서 볼 때에는 하나의 強力한 라이벌(rival)의 登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美國은 戰後의 世界經濟의 方向을 구상함에 있어서 IMF와 GATT를 통한 世界的인 貿易自由化를 그 目標로 삼았었는데, 여기에 또다시 하나의 새로운 그리고 強力한 <블록>으로서의 EEC가 出現하고 본즉, 自由化實現의 코스가 變更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美國을 中心으로 하는 世界的인 自由化(즉 世界主義 globalism)로부터 EEC를 中心으로 하는 <블록>을 통한 自由化(즉 地域主義 regionalism)에로 轉換하였다고 볼 수 있다.

IV. <貿易自由化>의 進展과 後進國經濟와의 關係

이미 누차 言及한 바와 같이 戰後 美國은 世界經濟의 將來를 구상함에 있어서 IMF와 GATT를 통한 <글로벌>(global)한 貿易自由化를 目標로 삼았었다. 그런데 이 GATT의 機能은 그 以後의 狀況을 보면, 先進諸國의 利益機構라고 불리어질만큼, 後進國의 貿易에는 그렇게 有益하게 作用한 組織이라고는 볼 수 없다. 後進國의 開發에 관한 理論的 代辯者인 <프레비슈>(Raul Prebish)의 報告¹⁴에 의하면, 「GATT는 주로 工業諸國에 利益이 되는 것으로, 一般的으로 後進諸國은 그것으로부터 直接的으로는 극히 적은 利益밖에 얻지 못하였다는 것은 事實이다」라고 指摘되어 있는데, 이것만 보아도 GATT의 性格의 一面을 알 수 있다. 그러면 GATT는 왜 工業諸國에 대한 것과 同一한만큼 後進諸國에 대하여는 有効하지 못하였

14. Report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Towards a New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1964. p. 40.

을까? 이에 관하여는 <프레비쉬>報告는 다음의 두가지를 指摘하고 있다. 첫째, ITO 憲章은 國際的 經濟諸勢力의 自由로운 活動이 自然히 貿易의 最大限의 擴大와 世界의 生産資源의 最能率的인 利用을 가져오게 된다는 古典學派의 觀念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法則이나 原則은 이 自由로운 活動을 保障하기 위해서 設定된 것이라는 것, 둘째, 問題의 法則이나 原則은 항상 嚴守된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文字上에서만 遵守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서조차, 法則이나 原則의 밑바닥에 存在하고 있는 精神은 尊重되지 않았다¹⁵라는 것이다. 自由貿易의 觀念은 構造的으로 類似한 나라들 사이에서는 可能하지만, 工業이 발달한 先進國家와 農業의 比重이 높은 後進國間에서 처럼, 構造的으로 全然 相異한 나라들 사이에서, 共通的인 觀念에 입각하여 그것을 實施하고자 할 때에는, 그 効果는 오히려 한편에 대하여는 不利益만을 초래하게 된다.

世界貿易의 發展에 있어서의 不均衡化傾向, 즉 先進諸國에 比한 後進諸國에 있어서의 輸出不振의 狀況을 잠시 동안 살펴 보기로 하자. 第10表에 의하면 1950~62년에 걸쳐서 先進國의 輸出額은 151%나 上昇을 표시하고 있음에 대하여, 後進國의 그것은 50%에 不過하다. 이것은 당연히 世界總輸出額에 占하는 몫(share)의 相對的 低下로 나타나, 1950년에 32%였던 것 <第10表>

輸出國그룹別 世界輸出額

(1950~62年)

輸 出 國 組 團	1962 年 指 數			年 增 加 率				配 分 率			
	1950 =100	1955 =100	1960 =100	1950 ~62	1950 ~55	1955 ~60	1960 ~62	1950	1955	1960	1962
世 界	228	152	100	7.1	8.4	6.6	4.9	100	100	100	100
先 進 市 場 經 濟	251	158	111	8.0	9.7	7.4	5.2	60	64	66	66
後 進 市 場 經 濟	150	122	106	3.4	4.2	2.9	2.8	32	26	22	21
國 家 計 劃 經 濟	353	187	115	11.1	13.6	10.1	7.4	8	11	12	13

資料: Handbook of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 先進市場經濟……美國·카나다·西歐·濠州·뉴지랜드·日本·南阿聯邦
國家計劃經濟……蘇聯·東歐·유고스라비아·中共·蒙古·北傀·越盟
後進市場經濟……其他의 世界諸國

이 1962년에는 21%로 縮少하고 있다. 더욱이 先進國의 위와 같은 輸出額의 飛躍的增加는 先進國相互間의 貿易擴大¹⁶에 의한 것으로, 1953년에는 37.1%였던 것이 1962년에는 44.1%로 上

15. *ibid.*, p. 42.

16. 戰後의 世界貿易이 그 때까지의 壓倒的인 形態였던 第1次生産品 對 工業製品이라는 垂直的貿易(즉 先進工業國 對 後進農業國間의 貿易)으로부터 그 工業製品相互間 특히 重化學工業品 相互間의 水平的貿易(즉 先進工業國 相互間의 貿易)으로 轉換하는 理由에 대하여는, 日本의 小島 清 教授는 그의 著『低開發國의 貿易』에서 다음의 세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두나라가 서로 大量으로 需要하는 商品의 種類나 品質이 類似하지 않으면 水平的 貿易은 일어나지 않는다. 즉 高所得水準의 類似國에 있어서는 水平貿易은 발생하기 쉽고 번성하게 된다. 둘째는, 高所得水準에 達하면, 需要가 多樣化하고 趣味·嗜好의 差異에 따라 널리 外國商品을 一비록 類似品이 國內에서 生産可能하다 할지언정 一願하게 된다. 셋째는, 所得과 需要가 急增하던 限界的 增加分을 加一層 外國으로부터의 輸入品으로 充當하는 傾向이 있다. 이와 같은 傾向은 戰後 유럽에서는 貿易自由化의 推進에 의하여 促進되었다.

昇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先進國의 對後進國輸出은 同一期間內에 20.4%로부터 17.2%로 低下하고, 그리고 後進國相互間貿易의 몫은 元來 낮(低)았지만, 그것이 加一層 低下하여, 同一期間內에 8%로부터 5.8%에로 縮少하고 있다.

이와 같이 世界貿易에 있어서 後進國의 比重이 低落하게 된 原因으로서는 一般的으로 다음 의 세가지를 들 수 있다. ① 後進國의 主要輸出商品인 一次生産物(後進國總輸出額의 85%를 占하고 있음)의 輸出供給量의 低下, ② 一次生産物에 대한 國際需要의 低下, ③ 一次生産物의 輸出價格의 低下. 물론 이들 세가지 條件은 각각 單獨으로 作用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關聯性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첫째번의 一產生産物의 輸出供給量低下의 原因에 관하여는 後進國에 있어서 人口의 加速度的인 增加에 의한 國內需要의 增大와, 이에 對應하는 國內産原料를 使用하는 製造工業의 育成策을 강구하였기 때문이다. 둘째번의 一次生産物에 대한 國際需要의 低下에 관하여는 第11表에 의거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이 表에서 무엇보다도 注目할 <第11表>

市場經濟：輸出入額, 數量, 單價指數 1962

項目 및 貿易國子體	金 額			數 量			單 價		
	1950 =100	1955 =100	1960 =100	1950 =100	1955 =100	1960 =100	1950 =100	1955 =100	1960 =100
輸 出									
市場經濟全體	216	148	109	193	147	111	113	100	99
先進市場經濟	251	158	111	212	150	110	119	104	101
後進市場經濟	150	122	106	157	137	111	96	89	95
輸 入									
市場經濟全體	222	147	111	206	153	113	108	96	98
先進市場經濟	240	154	113	221	162	115	108	95	98
後進市場經濟	179	128	104	167	130	107	108	99	98

資料：Handbook of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點은, 後進國의 輸出數量指數는 金額指數에 比하면 어느 基準年에 대하여도 높다는 것, 輸出數量에 있어서의 先進國과의 相對的關係는 金額指數에 있어서만큼은 큰 差異를 表示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例컨대, 後進國輸出의 對先進國關係를 1950年 基準으로 볼 때, 金額指數는 101포인트의 差異를 표시하고 있음에 대하여, 數量指數는 約折半인 55포인트의 差異를 나타내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後進國이 世界貿易에서 占하는 比重이 低下하게된 理由는 輸出數量의 相對의 下落보다는 오히려 輸出單價의 그것에 보다 더 크게 起因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것은 兩者間의 輸出單價의 差異가 23포인트나 되는 것만 보아도 능히 알수 있다.

여하튼간에 戰後 後進國의 輸出狀況은 先進國의 그것에 比하여 數量面에서나 價格面에서나 모두 相對的으로 低下하고 있는데, 그 原因에 관하여는 무엇보다도 一次生産物에 대한 國際需要의 減少를 들 수 있다. 그러면 一次生産物에 대한 國際需要를 減少케 한 理由는 또한 무엇일까? 닉시(Ragnar Nurkse)는 다음의 여섯가지를 들고 있다. ① 先進國經濟의 工業生産의 構造가 <輕工業>으로부터 <重工業>(機械工業, 化學工業等)으로, 즉 製品에 포함되는 原料의 比率이 높은 工業으로부터 낮은 工業으로 移行하고 있다. ② 先進工業國의 總產出高에 占하는 서비스의 比率이 上昇하고 있고, 이것이 先進國의 原料需要를 國民生産의 增加보다 적게 하고 있다. ③ 많은 農産物에 대한 消費者需要의 所得彈力性이 下落하고 있다. ④ 先進國에 있어서의 農業保護主義가 B 그룹(즉 後進國側)으로부터 A 그룹(즉 先進國側)으로의 一次生産物의 輸入을 阻止하고 있다. ⑤ 天然資源의 工業的 利用의 面에서 大幅的인 節約이 達成되고 있다. ⑥ 主要한 工業中心地에서는 天然原料를, 극히 흔한 몇개의 基礎的인 要素로부터 製造되는 合成原料나 人工的인 代替品으로써 代替하는 傾向이 漸增하고 있다.¹⁷

셋째번의 輸出單價低下의 原因에 관하여는, <프레비슈>는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즉, 「後進國으로부터 輸出되는 生産物이 그것과 同一한 生産物의 先進國에서의 生産, 또는 天然生産物·人造品·代替品 등과 競爭關係에 있는 경우에는, 價格의 引上 또는 維持의 限度는 先進國에 의한 協力程度의 如何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明白한 일이다. 後進國이 어떠한 生産物의 唯一한 生産者인 경우에서조차, 後進國相互間에서의 合意의 缺如, 또는 各種의 特惠制度構成員間(構成員과 非構成員間도 포함하여)의 利害의 相值 때문에, 價格의 引上 또는 維持를 達成하는데 一致된 措置를 取하는 것은 困難하다」.¹⁸ 즉 輸出價格은 後進國이 自主的으로 決定할 수는 없고, 항상 先進國의 協力を 必要로 하고, 따라서 不利化는 피할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後進國의 輸入의 面을 보면, 輸出의 경우와는 對照的으로 이에 比例하지 않은 輸入의 큰 增大가 行하여 지고 있다. 그理由는, 첫째, 經濟開發을 위해 必要한 資本財(capital goods)의 輸入增加와, 둘째, 人口增加에 따르는 食糧輸入需要의 增加 때문이다. 특히 輸入金額의 增加率이 높은 理由는 輸入單價의 相對的인 上昇 때문이다. 이것은 앞서의 輸出金額의 低下의 原因이 輸出單價의 相對的 低下 때문인 것과는 正反對의 現象이다. 앞서의 第11表에서 보건대, 先進工業國의 輸出商品(主로 工業製品)의 輸出單價는 1950年에서 1962年까지의 12年 동안에 19 포인트 上昇하고 있음에 대하여, 後進國의 그것은 오히려 4포인트 下落하고 있다. 後進國의 貿易이 얼마만큼 不利한 條件下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이 事實 하나만으로도 充分히 이해할

17. Ragnar Nurkse, *Patterns of Trade Development*, 1959.

18. Report by the Secretary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Towards a New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1964. p. 56~64.

수 있다. 後進國이 제아무리 貿易自由化에의 意慾이 強하다 할지라도, 先進國과 構造的으로 相異한 以上, 그 實現에는 많은 難關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戰後의 貿易自由化의 義務는 IMF의 第8條와 GATT의 第11條에 각각 規定되어 있으나, 한편 國際收支의 擁護를 理由로 貿易制限을 是認하는 例外規定이 IMF 第12條와 GATT 第12條(後進國의 경우는 第18條)에 制定되게 되었다 함은 이미 論한 바이다. (註7에서 論하였음). 事實 유럽의 主要國들은 美國經濟力의 優位性의 相對的低下와 EEC의 飛躍的發展이라는 轉換期中에서, 다시 말하면 美國經濟力과의 不均衡이 是正된 다음에 비로소 1961年 2월에 일제히 IMF 第8條國으로 移行하게 되었다. (벨기에·프랑스·西獨·아일랜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和蘭·스웨덴·英國·페루의 10個國).

後進國이 經濟開發을 實行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必要한 것은 資本財인데, 그 資本財를 獲得할 수 있는 外貨의 問題를 어떻게 解決하는가 하는 點은 重要한 課題가 아닐수 없다. 〈너지〉는 後進國開發의 方向으로서 다음의 세가지 〈패턴〉(pattern)을 指摘하였다. ①第1次生産物의 輸出을 통한 成長, ② 加工消費財의 輸出을 통한 成長, ③ 國內市場에 根據를 둔 成長.¹⁹ GATT의 分析이 ①의 〈패턴〉에 集中하고, UN의 報告가 하나의 理想으로서 ②의 〈패턴〉을 強調하고 있음에 대하여, 〈너지〉는 이 兩者가 모두 實現不可能하다는 理由下에 ③의 〈패턴〉을 主張하고 있다. 사실 오늘날 後進國에 있어서 纖維製品을 中心으로 하는 消費財의 輸入도 적지 않아, 이것을 國內製品으로 代替하므로써 市場의 擴大와 外貨의 節約을 가져올 수 있음은 明白한 일이다. 오늘날 論議되고 있는 共同市場의 問題도 이 方面을 追求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以上에서 指摘한 〈너지〉의 論議는 主로 工業化의 〈市場의面〉을 追求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 우리들의 當面의 課題가 工業化以前의 〈外貨獲得의 面〉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事實 우리들의 論議를 工業化의 初期에 局限한다고 하면, 위에서 列擧한 너지의 ②, ③의 〈패턴〉은 成立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①의 〈패턴〉인 第1次生産物을 통한 成長은, 앞서 고찰한 것처럼, 希望的이 못 된다. 따라서 外貨獲得의 問題를 해결 하기 위하여는 우리들은 〈너지〉의 생각과는 다른 角度에서 追求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後進國은 先進國으로부터의 經濟援助(贈與, 借款 및 投資)에 의하여 外貨의 問題를 해결하고자 企圖한다. 1949年 1月 10日 〈트루만〉 大統領에 의하여 表明된 「포인트·워·프로그램」(Point Four Program)의 提案을 契機로 하여 經濟援助에 대한 關心이 높아졌고, 특히 1960年 1月 對後進國 經濟援助를 主要目的으로 하는 先進諸國의 協力機構인 「開發援助그룹」(Development Assistance Group=DAG)이 設立되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翌年9月에는 「經濟協力開發機構」(Organization for

19. Ragnar Nurkse, *Patterns of Trade and Development*, 1959 『國際經濟』 第12號, 「世界貿易의 自由化と 後進諸國」 p. 88~89.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의 出現을 보게 되어 先進國의 援助는 1956年의 62億달러로부터 61년에는 93億달러로, 不過6年間に 50%에 가까운 大幅的인 增加를 보게 되었다.²⁰

그러나 先進國에 의한 經濟援助는 1961年을 <피크>(peak)로 하여 그 以後부터는 減少傾向을 表示하였고, 한편 後進國側에서는 先進國援助의 實質的인 經濟效果에 대하여 從來처럼 높 이 評價하지는 않게 되었다. 後進國의 立場에서는 지속적인 貿易收支의 逆調(unfavourable balance of trade)를 抑制하여 外貨의 流失을 防止하는 편이 援助의 受入보다도 經濟發展에 對하여 더 重要하다는 思考가 널리 波及되었고, 그 結果 「援助보다는 貿易을」(Trade not Aid)이라는 <슬로건>을 낳게 되어 그것이 先進國에 對한 後進國의 強力한 要請으로 지게 되었다. 後進國에 對한 이와 같은 強力한 要請을 뒷받침으로 하여, 1964年 3月 23日부터 6月16日까지의 約 3個月間, 瑞西에서 參加國121, 代表團總員 1,500名으로 成立된 史上最大의 第1回 「UN 通商開發會議」(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UNCTAD)가 開催되기에 이르렀다.

經濟援助는 主로 供與國의 商品 또는 技術輸出에 依하여 行해지고 있고, 그 경우의 價格은 贈與이건 借款供與이건간에, 一般的으로 同一商品의 國際的인 平均價格보다도 비싸고, 따라서 援助의 實質價値는 이런 面에서도 減額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리고 商品의 自由로운 選擇에 對한 制約등을 計算에 넣으면 援助는 實質的으로는 名目價額만 欸의 價値는 갖지 못한다는 것, 더욱이 援助의 約 40%는 借款으로, 그 元利金支拂의 負擔이 每年 累進的으로 增加하여 援助의 實質的인 受取額은 名目額高의 1/3(1961年의 實績에 對해서)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²¹ <프레빗슈>의 報告에 依하면 後進國은 1950년부터 61년까지의 사이에 先進國으로부터 474億달러(民間의 再投資를 포함하여)의 援助를 받았는데, 그러나 그동안에 支拂한 利子, 利潤의 送金은 209億달러에 達하고, 그리고 交易條件(terms of trade)의 不利化에 對한 購買力의 低下는 約 131億달러가 되므로 實質的으로는 134億달러 밖에 受取하 못하였다고 한다.²² 이와 같은 報告書의 內容은 經濟援助에 對한 날카로운 分析이라고 볼 수 있다.

經濟援助에 對한 이와 같은 批判의 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은, 한편 輸出貿易에 對한 後進國의 關心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輸出에 對한 關心이 높아지고 본즉, 당연히 그 停滯에 對한 原因을 구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後進國은 그 輸出商品의 85%까지가 一次生産物이고, 따라서 輸出擴大를 決定하는 要因은, 이 一次生産物에 對한 先

(20) OECD, *The Flow of Financial Resources to Less-developed Countries 1956~1963*, 1965, Table 11-2.

(21) 原 覺天, 『世界經濟의 變革と 發展』, 1967, p.90~91.

(22) Report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Towards a New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1964. p. 26~27.

進國의 輸入需要如何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近來에 이르러 先進國內에서의 技術革新(technological innovation)과 農業保護主義의 두가지 理由 때문에, 一次生産物의 生産量이 급격하게 增加하여 世界의 一次生産物輸出에 占하는 比率은 先進國과 後進國間에 逆轉하여, 前者의 경우 1950年の 47%로부터 61년에는 55%로 增大하고 있는데 反하여, 後者の 경우는 41%로부터 20%에로 下落하고 있다. 따라서 輸出停滯의 打開策은 첫째, 先進國으로 하여금 그 農業保護主義를 포기 케하든가, 둘째, 그 保護主義를 現在의 水準보다 強化시키지 않게 하든가, 셋째, 後進國의 一次生産物輸出에 대한 先進國의 關稅・國內稅・輸入數量制限 등을 輕減내지 撤廢시키게 하든가 하는 點에 留意하게 되었다. 1964年の 第1回 「UN 通商開發會議」에서 後進國의 一次生産物에 關해서 提出한 共同決議案을 보진대, 첫째, 一次生産物價格을 衡平하게 그리고 利潤을 낼수 있도록 安定시킬 것, 둘째, 先進國에서의 一次生産物의 消費및 輸入을 增大시킬 것, 셋째, 一次生産物의 生産政策과 市場政策을 調整할 것등으로 되어 있다.

「UN 通商開發會議」에 提出한 이와 같은 議題는 1964년에 이르러 비로소 論議된 것이 아니고, 이미 1958年以來 거의 비슷한 內容을 가지고 GATT의 場所에서 討議되었었다. GATT는 理念으로서 無差制・自由貿易主義를 主張하지만, 英聯邦등의 既存의 特惠制, 農業保護政策, 國內工業保護를 위한 緊急輸入制限 등, 先進國의 利害에 關係되는 重要問題는 모두 例外規定에 의하여 認定하고 있어, 그와 같은 意味에서 GATT는 先進國에 대하여는 有利한 體制이지만, 後進國에 대하여는 그와 同一한 有利性을 갖는다고는 볼 수 없고, 때로는 反對의 作用까지 하게된다. 따라서 GATT의 場所에서의 問題解決을 위한 努力은, 後進國側의 GATT에 대한 不信任 때문에 結實을 보지 못하고, 마침내 貿易擴大에 대한 要請은 「UN 通商開發會議」에로 移行을 보게 되었다.

後進國의 몇가지 主張중에서도 가장 큰 比重을 占하는 點은, 一次生産物에 대한 先進國의 關稅障壁 또는 數量制限의 除去에 關한 것이다. 後進國이 가장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生産物의 輸出이 先進國의 政策의 障壁에 의하여 抑制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 要求의 切實性을 充分히 이해할 수 있다. 關稅障壁除去에의 要求는 비단 一次生産物뿐만 아니라, 製品, 半製品에까지 이르러, 그와 같은 意味에서 後進國의 要求는 徹底한 貿易自由化를 意圖하고 있고, 따라서 그것은 GATT의 例外規定에서 認定하고 있는 貿易障壁을 除去하여 名實相符한 自由化의 實現을 要求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後進國의 貿易自由化에의 要求는, 앞서 말한 것처럼, 先進國의 國內政策에서의 保護主義의 撤廢 내지 制限 등에 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後進國의 이와 같은 要求는, 貿易의 不利化——그것은 構造的인 諸要因에 입각하고 있는 것인데——의 모든 責任을 先進國에 轉嫁하고자 하고, 따라서 그 解決의 方法을 先進國

의 一方的인 讓步에 求하고자 하는 點에서, 政策的인 面에서는 몰라도 理論的인 面에서는 아직 充分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先進國은 GATT의 경우에서처럼, 「UN 通商開發會議」의 경우에서도 後進國의 要求에는 극히 消極的인 態度를 表示하였음에 不過하고, 經濟協力을 重要한 國際政策으로 하면서도 貿易의 面에서는 從前과 다름 없이 GATT——그것은 同一한 經濟構造를 갖는 나라들 사이에서의 貿易自由化를 假定하고 成立된 것이지만——에 의존하고자 하는 點에 問題가 介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 結 論

지금까지의 分析을 要約해 보기로 하자.

第1次大戰後 10年 동안 先進工業諸國의 經濟力은 戰前水準을 크게 上廻하는 눈부신 發展을 이룩하였으나, 그러나 ①需要가 이에 따르지 못하여 過剩生産의 傾向이 擡頭하게 되었고, 특히 ②農産物과 工業製品과의 甚한 價格差와, ③金本位制의 復歸過程에서의 各國의 物價水準의 不均衡化는 마침내 1929年의 世界的인 大不況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이 大不況은 從來의 그것과는 달리 加速度的이고 長期的이었고, 이를 契機로 하여 各國은 一次大戰後 잠시 동안 復歸하였던 金本位制를 다시 停止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慢性的인 不況下에서 各國은 貿易收支 또는 國際收支의 不均衡狀態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를 打開하기 위하여 關稅引上, 貿易數量의 制限, 換率引下등의 政策을 積極的으로 採擇하게 되었고, 相對國도 이에 대한 報復手段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것은 結果적으로 世界貿易을 크게 縮少키게 되었다. 이와 같은 梗塞化된 世界經濟속에서 各國家에 대하여 남은 唯一한 活路는 <블록經濟>를 形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블록經濟>는 世界市場을 여러 갈래로 分斷하게 되어, 마침내 先進工業諸國으로 하여금 武力衝突의 길로 몰아넣어 第2次大戰의 勃發을 보게 되었다.

第2次大戰勃發의 原因의 하나가 以上과 같은 <블록經濟> 또는 <地域主義>에 由來하였다고 볼진대, 戰後의 國際政策 또한 이와 같은 地域主義를 克服할 수 있는 이른바 <世界主義>에 입각한 方策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戰爭을 前後하여 世界經濟의 主導權을 장악하게 된 美國은 戰後의 世界經濟를 構想함에 있어서 <貿易自由化>를 그 目標로 삼았고, 그리고 그것을 IMF 나 GATT 와 같은 國際機構를 통하여 實現하고자 企圖하였다.

貿易自由化의 原則은, 첫째, 서로 互惠的인 基盤 위에서 關稅를 輕減하고 貿易의 數量制限 등을 排除하고자 하는 「自由通商의 原則」, 둘째, 最惠主義·無差別主義를 內容으로 하는 衡平의 原則과 換時勢를 他國通貨와 衡平한 關係에서 維持 安定하고자 하는 이른바 「衡平 및 安定의 原則」, 셋째, 各國家의 實質所得과 有効需要의 增加를 確保하면서, 商品의 生産·消費·交

換을 增大코자 하는 이른 바 「擴大均衡의 原則」의 세가치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貿易自由化의 旗幟 아래 出發한 유럽諸國도 그 처음의 行路는 그렇게 平坦하지는 않았고, 여러가지의 迂餘曲折을 經過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얼마後, 1948년부터 開始된 <마아셜>援助는 西歐經濟의 復興에 크게 이바지하였었지만, 그러나 西歐經濟가 本格的으로 貿易自由化에 着手하기 위하여는 <파운드>貨를 비롯한 各國通貨의 換調整을 行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50年 1月 OEEC 理事會는 貿易自由化를 위해 劃期的인 措置를 取하였으니, 그 하나는 域內無差別貿易을 위해 이른 바 「自由化規約」를 採擇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OEEC 諸國間의 通貨의 多角的인 交換을 위해 「歐州決濟同盟」(EPU)을 創設한 것이다. 이리하여 西歐經濟는 이 「自由化規約」과 EPU의 도움을 가지고 貿易의 自由化를 本格的으로 推進하여, 經濟發展을 크게 이룩하게 되었다. 그러나 戰後의 貿易自由化는 어디까지나 先進諸國을 中心으로 推進된 것으로, 後進諸國은 거의 自由化政策을 採用하고 있지 않다. 後進諸國은 經濟開發計劃을 推進하기 위하여 貿易制限·換管理·輸入稅의 操作 등에 의하여 消費財의 輸入抑制을 強化하고 있다. 그러나 消費財輸入의 抑制은 後進國에 있어서의 消費財價格의 上昇을 야기시키고 <인프레>의 昂進을 誘發하므로, 비록 一次生産物輸出이 不振하게 되어도, 消費財의 輸入抑制에는 限度가 있는 것으로, 따라서 結果적으로는 貿易收支의 赤字는 免키 어려운 것이다. 아니, 오히려 貿易收支의 赤字는 增加一路를 밟고 있다. 그러므로 後進國에서는 貿易自由化는 심히 뒤떨어져 있다.

여하튼간에 戰後의 世界貿易은 貿易自由化의 推進에 의하여 크게 成長하였음은 贅言을 要하지 않는 바이다. 그러나 그 높은 成長은 주로 先進工業國相互間의 貿易增大에 의하여 이루어 졌고, 이와 對照的으로 後進國의 貿易은 相對的으로 낮은 成長率을 보여왔음에 不過하다. 첫째번의 先進國相互間의 貿易增大에 관해서 말하건대, 終戰直後부터 約10年동안은 美國經濟力의 絶對的優位下에 <글로벌>한 (즉 世界的인) 貿易自由化가 推進되었었으나, 1950年代末期부터는 EEC의 登場과 더불어 美國의 比重이 相對的으로 低下하게 되고, 이에 따라 貿易自由化 또한 <블록>을 통한 地域主義的인 自由化에로 轉換을 보게 되었다.

다음에 貿易自由化의 進展에 따르는 後進國經濟의 不均衡化問題는 이미 1950年代의 中期부터 國際的으로 重要視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에 대한 論議의 焦點은 항상<國際貿易에 있어서의 後進國의 不利化>에 놓여 졌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對策의 重點은 언제나 資本援助(贈與 또는 借款供與)에 置重하고, 적어도 後進國의 貿易擴大를 위한 國際政策에 관한 限, 先進諸國은 아주 消極的이었다. 이와 같이 先進國이 後進國貿易의 擴大와 發展에 대하여 消極的이었던 理由는 다음과 같다. 즉 戰後 大部分의 先進國은 農業保護主義를 採擇하고 있고, 後進國의 主要輸出品인 一次生産物의 輸入에 대하여는 상당히 높은 關稅 또는 數量制限의 障壁

을 設定하고 있다. 따라서 後進國의 一次生産物의 輸出強化와 先進國의 保護産業의 商品(역시 一次生産物)과는 치열한 競争性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後進國의 經濟發展에 대하여 貿易의 擴大가 얼마만큼 重要한 것인가에 관한 認識은 後進國內에서조차 극히 最近의 일이다. “Trade and Aid”(「貿易과 援助를」)의 <슬로간>을 내건 것은 1950年代末로서, 그後 1962年頃에 이르러 비로소 積極的으로 “Trade not Aid”(「援助보다는 貿易을」)이라는 <슬로간>을 뚜렷이 表明하게 되었다. 그때까지는 後進國은 經濟發展에 대하여는 무엇보다도 <援助>의 役割을 重要視하고, <貿易>의 擴大를 통한 開發促進에는 그렇게 큰 關心을 보이지 않았었다. 이리하여 이번에는 貿易擴大를 위하여 後進國側에서는 先進國側과는 다른 角度에서, 즉 先進國에 대한 一次生産物 또는 製品, 半製品의 輸出增大와 그리고 그 交易條件의 改善을 위하여, 오히려 貿易自由化를 主張하게 되었다.